Friday Refresh 2009-12-11 no.530

신의 지문인가, 인간의 발자국인가

신의 지문
이상성 | 신인문사

미리 고백하거니와, 교보문고 북모닝 CEO에서 이 책에 대한 서평을 써 달라고 부탁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내가 이미 여러 차례 거절한 전과가 있어 더 거절하기 미안한 상태가 아니었더라면, 또 내가 이 책을 비슷한 제목의 다른 책과 착각하지 않았더라면, 십중팔구 나는 이 책을 읽지 않았을 것이다.

주식 투자자들에게 "주식과 사랑하지 말라"는 경구가 통용되듯이, 역사학자들은 "연구 대상과 사랑에 빠지지 말라"는 랑케 이래의 오래된 경구를 잊지 않고 있다. 이제 '있던 그대로의 과거'를 복원하는 것이 역사라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지만, 심지어 역사란 '과거에 대한 역사가의 이야기'일 뿐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지만, 그래도 어떤 책에 "역사"라는 말을 붙이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객관성'은 유지해야 한다고들 생각하기 때문이다. 대상을 사랑하는 순간, 그 대상은 세상의 모든 선함과 아름다움과 의로움을 다 갖게 되며, 간혹 큰 잘못을 범한다 해도 언제나 용서할 수 있는 선에서 머물게 마련이다.

나는 대개 제목과 저자 소개를 본 뒤 그것만으로 그 책을 읽을지 말지를 판단한다. 역시 선입관에 따른 결정이지만, 별로 틀려 본 적이 없다. 하기야 읽지 않은 책에 대해서는 틀렸는지 맞았는지조차 알 수 없지만. 이 책은 제목에서나 저자의 간단한 경력 사항에서나 신학자가 쓴 기독교사라는 냄새가 물씬 풍겼다. 하나님(이 책에서는 굳이 하느님이라고 썼지만)을 사랑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언한 책들은 다 그렇고 그렇지 않았던가. 그렇다고 일단 허락한 일을 무를 수도 없는 일, 일단 책을 펼쳤다.

이 책은 기독교의 탄생부터 종교개혁까지 '기독교권'의 역사를 저자가 선정한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다룬 역사책이다. 그렇다고 무슨 '열댓가지 사건'같은 통속적인 '사건사'는 아니다. '뒤흔든'이라는 제목이 주는 지나친 '통속성'의 느낌을 지우고 읽으면, 오히려 가급적 통사적 관점을 견지하려고 애쓴 흔적이 역력하다. 이 책은 7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세상에 던진 노예 공동체의 메시지 - 하나의 신을 믿는 여러 인종의 특이한 사람들"에서는 박해받던 이집트의 노예들 속에서 유일신 신앙이 나오고, 이 믿음으로 하나된 사람들이 유대 '민족'을 형성하며, 유대 민족 속에서 기독교가 탄생하기까지의 과정을 담았다. 예수에 생애와 생각에 대해서는 오히려 소략하여, 다만 '유대인이 고난의 와중에서 세계에 영향을 미칠 힘'을 길렀고, 그 힘이 '세계 민중들의 고난을 이해하는" 기독교로 이어졌음을 이야기할 뿐이다. 예수를 건너뛰다시피 한 것은 저자에게 너무 자명해서였을까? 아니면 예수의, 예수에 관한 이야기들을 다 믿기 어려워서였을까?

2. "다마스쿠스에서 발길을 돌려 세계로 가다 - 그리스와 로마의 세계로 가기 위해 풀어야 했던 숙제"는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기독교를 납득시키기 위해 예수의 사상을 그리스 철학의 논리로 풀어썼음을 밝히고

있다. 저자는 이 과정에서 예수 사상의 본령이 일부 바뀌었음을 분명히 지적한다. “바울은 철저하게 현실에 바탕을 두고 이 땅에 하늘나라를 세우려 했던 예수의 사상과 유대 사상을, 이 세상을 경멸하고 이데아의 세상을 동경하는 그리스적 구조로 바꿔버렸다.” 그렇다면 그리스적 논리로 정리된 성서는 또 어떻게 되는가?

3. “그는 인간인가, 신인가? - 동유럽과 서유럽을 영원히 나눈 논쟁”은 예수를 둘러싸고 벌어진 신성과 인성 논쟁, 즉 기독논쟁의 과정과 결과를 다룬다. 시간적으로는 4 세기 콘스탄티누스의 기독교 공인부터 11 세기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분열까지 무려 700 여년에 해당한다. 저자는 이 논쟁에 개입하기보다는 관찰자로서 당대(너무 길기는 하지만)의 쟁점들을 충실히 소개하려 한다. 이 책의 미덕 중 하나이다. 그래서 가톨릭과 동방 정교, 개신교의 교회들이 같은 하느님과 그리스도를 섬기면서도 왜 그렇게 다른지를 친절히 설명해준다.

4. “신의 이름으로 시작한 인간의 전쟁 - 십자군이 만난 새로운 세상”은 십자군 전쟁과 그 이후 유럽 사회의 변화를 다룬다. 전쟁의 동기를 세속 권력의 무력 기반을 약화시키고자 한 교황의 ‘사사로운 욕심’에서 찾은 지나친 단순화가 거슬리기는 하지만, 정통 역사서를 표방한 책은 아니니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독자 스스로 다른 책을 찾아 읽으면 그만이다.

5. “그것은 이름뿐인가, 실재하는 세상인가? - 신학과 작별하고 과학의 길을 열다”는 이른바 ‘보편논쟁’을 다룬다. 저자는 십자군 전쟁을 겪으면서 유럽에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소생하고, 그 결과 더욱 정교해진 철학적 사유가 오히려 신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하게 된 상황을 깔끔하게 정리했다. 이 장의 결론은 “신학이 이성적 학문이 아니라 신앙에 근거한 학문”으로 재규정됨으로써 비로소 “이성에 근거한 과학”이 독립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성의 해방”은 진정 역사의 진보인가? 이에 관해서는 저자의 관점도 흔들리는 듯하다.

6. “신이 다스리는, 인간적인 세상을 향해 - 고대에서 현대까지 이어지는 천년왕국 운동”은 중세의 천년왕국 운동을 마르크스주의의 전사로 파악한다. 사실 이 점은 마르크스 자신이 “종교는 인간 본성의 환상적 실현”이라고 했을 때, 이미 스스로 고백한 바였다. 문화사적 관점에서 공산당이 기독교의 초기 공동체 모델뿐 아니라 “관료화한 기독교”까지도 여러 면에서 모방, 답습했음은 여러 학자들이 지적한 바이다. 그럼에도 이 책에서 설명하는 방식은 새삼 흥미롭다.

7. “세속을 지배하던 단 하나의 교회가 허물어지다 - 누구나 신을 만날 수 있는 세상을 향해”는 종교 개혁과 개신교의 탄생을 다룬다. 종교 개혁은 중등학교 교과서에도 빠지지 않는 내용이니 새삼스러울 것이 없지만, 루터와 칼뱅의 서로 다른 생각, 당대 종교 개혁의 의의와 한계 등은 오늘날 한국 교회를 되돌아 볼 수 있는 풍부한 시사점을 준다.

이미 다들 알았겠지만, 나는 기독교 신자가 아니다. 그러니 내가 선입관을 갖고 이 책을 집어든 것을 탓하지는 않았으면 한다.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또 읽고 나서 ‘역시 선입관은 옳지 않은 것’이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다는 점도 양해를 구할 핑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내가 이 책의 주장에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역사학자이자 비(非)신자인 내 관점에서는 수긍할 수 없는 내용도 많고, 개념 사용이 정교하지 못하거나 지나치게 단순화한 내용도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특히 책의 제목은 4 세기 이후의 서양사를 ‘신과

인간의 싸움의 역사', '인간이 신을 죽이고 스스로 우상이 되어 저지른 일들의 역사'로 이해하는 저자의 견해와도 모순된다. **『신의 지문』**이라는 책도 이미 나온 지 오래되었고. 독자들에게 선입관을 주기 십상이다.

그러나 이 책은 기독교 교리에 전문적 식견을 가진 저자가 전문가 못지 않은 역사적 지식의 뒷받침 아래 쓴 '기독교 문명사'로서는 충분한 가치를 지닌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진지하게 자문하는 기독교인들에게, 그리고 '기독교란 과연 어떤 종교인가'가 궁금한 비기독교인들에게, 이 책은 '역사 속의 기독교'로 안내해 주는 충실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전우용 (서울대학교병원 병원역사문화센터 교수)